

대한광장

선진국민의 조건



설 동 훈  
전북대학교수·사회학

이겼다. 또 이겼다. 15년 전 1987년 6월항쟁 당시 가두를 가득 채웠던 시민들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전국의 주요 거리를 뒤덮었다. 붉게 과도치는 사람들, 휘날리는 태극기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돼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쳤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했다.

전 국민이 대(對) 이탈리아 축구시합 승리의 감격에 겨워 밤잠을 설치고 있다. 우리는 피식민, 동족상잔, 분단과 이산의 아픔, 국가부도 직전까지 치달았던 경제위기의 상

처 등 20세기의 질곡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있는 국민임을 확인하며 감격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나, 불과 50년 사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또한 한국은 10여년 사이에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서 벗어나 절저적 민주주의를 달성했다. 세계 시민들은 한국이 이룩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경의(敬異)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전 세계 대학의 주요 교과서에 한국의 경제·정치·사회발전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월드컵 계기 시민의식 성숙

한국인들은 그 날의 승리를 한(恨) 맺힌 현대사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 출발하는 전환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의 승리는 축구경기가 끝나 후 더욱 빛나고 있다. 상대가 반칙을 하더라도 축구규칙을 지키며 신사적 태도를 버리지 않은 선수들, 그들에 대한 전폭적 응원을 아끼지 않은 관중들, 전국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들. 그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선보이고 있다. 수백만명이 운집해 열광하는데도, 무

시무시할 정도로 정돈된 질서를 보이는 한국인의 모습에 우리 스스로 놀라고 있다.

우리는 목적인 바를 이루는 집중력과 끈기를 갖고 있다. 배고픔에서 탈피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폭압을 뚫기 위해 정열을 결집해 온 한국인은 이제 그것을 질서 잡힌 시민의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다시 말해 ‘문화적 여유와 자부심’으로 충만한 선진국민의 기초 조건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선진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과제가 남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첫째는 부정부패 척결이다. 부정부패 척결에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사회 제반영역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남아 있다.

둘째는 온정주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비합리성의 극복이다. 최근 거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분석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나는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 연고주의와 위계주의적 문화를 탈피한, 합리적인 선수기용이라고 본다. 이러한 원리를 한국사회 일반에도 도입해야 한다.

셋째는 각종 차별의 철폐다. 그것은 제도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 속에 남아 있는 편견

까지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여성·장애인·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한 ‘졸부’와 같은 처신을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모범국가라는 점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이 아니라 한국에 왔다고 말한다.

부패척결·온정주의 없애야

그들의 모국에 ‘졸부국가 한국’의 이미지가 전파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간 꿈꿔 왔던 밝은 미래를 실현할 첫걸음을 내디딜 때다. 선진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확인하고, 우리의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우리는 이뤘다. 한국인이 이룩한 경제성장은 다른 나라 민중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달성한 제국주의 국가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다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평화와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가득한 선진민주주의 사회 건설의 가능성이 우리 눈앞에 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힘차게 정진하자.